남북한 민족문화 건설과 문화통합 모색

배 성 인(명지대학교)

◈ 논 문 요 약 ◈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이질화된 남북한에게 통일 이후 민족동질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족문화이다. 민족문화는 상호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이질성을 포용해서 문화통합을 이루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통일과정에 있어서 드러날 심각한 문제점은 '내적 식민지화'와 그것으로 인한 사회 심리적 균열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질성을 확보하고 이질성을 포용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통합의 선결과제로서 남북한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인식해야 한다. 현재 남한 사회나 남한 학자들의 공동체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여전히 획일주의와 권위주의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은 근대화론과 제국주의적 정서에 근거한다. 이에 우리에게는 남북한 문화의 이해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같음'을 강조함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다름'조차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질화를 우열의 관계로 생각해서 북한을 이질화의 중심 의제로 놓는 경향이다. 남북한의 이질화는 어느 일방의 문제로 고려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다.

남북 사이의 문화통합은 현실 여건상 단계적인 접근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인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이질적인 부분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문화적 동질성이 남아 있는 전통적 민족문화의 확대 노력하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한 문화통합은 교류모색 단계, 제한적 교류단계, 교류활성화 단계, 통일문화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통일문화는 민족문화가 승화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진정한 민족간의 통합, 사람들의 통합을 이루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Ⅰ. 머리말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 군사교류와 회담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분단이 주는 강고한 정치 군사적 의미 때문일 것이다. 반면 김대중 정부의 '햇

별정책'으로 통칭되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정책 속에서 가장 기지개를 크게 편 부문은 경제분야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각종 남북 문화교류와 이산가족 상봉사에 얽힌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사안이다. 이처럼 현재의 남북관계는 각 부문, 분야별로 확대되어지고 있고, 그 관심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중이다.

남북한은 지난 50여년 동안 체제 경쟁과 대립의 결과로 정치적·경제적 제도 및 전략, 일상생활의 영위방식, 문화적·사상적 진리 규정 등 모든 부문에서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깊은 오해와 불신으로 그 골이 더욱 깊어졌다. 반세기 동안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사람들의 이질화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문제를 이념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남한사회가 너무 자본주의 속성에 젖어있어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문화예술교류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 이후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치·경제·군사 등 타분야에 비해 교류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낮기 때문에 언어, 역사 등 제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지난 2001년 8.15 평양축전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른바 '남남갈등'의 증폭으로 남한 사회 내부의 이질적 요소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남한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갈등과 조화라는 자유로움을 보여주었다고 하기에는 그 골이 너무 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많은 만남,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통한 남북간 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교훈을 새삼 깨달았다. 또한 남북간에 '다름'을 이해하고 '같음'을 찾는 만남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북의 동질성 확보를 통하여 민족의 존엄성을 되살리는 데서 민족중심사고는 기본이다. 남북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남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은 북한이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다. 그 안에는 흡수통일적 시각도 들어 있는데, 북한은 남한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며 이를 북에도 강요하는 것

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민족의 중심에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 하며, 가장 중심이 되는 화두로 문화 정체성이 거론된다. 이는 문화가 어느 한 시기에 단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고유하고도 창조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며 그만큼 문화산업이 가지는 부가가치가 크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이 지구촌에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할 바탕이기도 하다. 장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은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과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문화에 뿌리깊게 잔류되어 여전히 생활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공동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비슷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공통의 심리적 특성 및 동질적인 의식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민족은 민족의 생활 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공동의 언어 구조와 축적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 공간을 재통합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메커니즘도 지니고 있다.[1)]

민족문화란 변함없이 지속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생성발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시점에서도 보존과 보급 그리고 외래문화의 수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도 5천년 역사를 공유했다는 "이미지"로 50년 역사를 지우려한다. 지나친 감정과 낭만적인 접근은 오히려 남북을 이해하는 데 저해된다. 그 보다 필요한 것은 그 50년 역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다. 특히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이질화된 남북한에게는 통일 이후 민족동질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민족문화이기 때문에 더욱 이성적이고 분석적이어야 한다.

통일문제는 냉전체제의 극복, 경제적 협력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보다 진전된 단일정부 형성과 통일한국 이후 사회 문화적 통합에 이르는 복합적인 단계로 보아야 하며, 그에 이르는 과정도 현실적인 여건과 국익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일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

---

1) 강민석, "민족공동체 논리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통일교육의 접근방향," 『공주대학교 교육 연구』 제9집(1993), pp. 130~131 참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이질성을 포용하여 진정한 민족간의 통합, 사람들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Ⅱ. 이론적 논의 : 세계화와 민족문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유연화 전략은 문화산업을 확장시키며 문화의 초민족화를 초래한다. 신자유주의의 침투로 인해 문화영역에는 산업화의 개념이 도입되어 문화산업이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소비자본주의가 본격 가동되면서 일어났다. 현재 문화는 자본축적의 미시적 영역으로 제공되고 있다. 문화는 고부가 상품을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자본축적의 새로운 개간지가 되고 있다.

문화영역에서 '세계화'의 담론은 문화전쟁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는 전 지구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쟁의 시대에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한다. 하드웨어 중심의 상품생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으로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문화가 산업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고, 문화가 지니는 높은 부가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때 국제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

문화의 세계화는 운송수단·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더불어 전 지구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였다. 고유한 역사를 지닌 각 지역의 특수한 문화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한 각종 문화상품들로 인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결국 전통문화가 시장법칙에 복종하면서 문화산업은 점점 더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된다. 세계가 코카콜라의 식민지화하고 디즈니랜드 문화가 범람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즉 '문화상품의 세계화' 일뿐 '문화의 세계화'는 아닌 것이다.

문화의 세계화는 한편으로 역사의 긴 기간동안 형성되고 파편화된 지역문화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만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교환과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의해 전 지구화된 최근의 산업이 시장에 내놓은 재

2) 강명구, "국제화와 문화적 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제22권 제2호 통권 84호 (창작과 비평사, 1994), p. 70.

화와 서비스의 만남을 그 특징으로 한다.[3]

현재 진행중인 문화의 세계화는 두 가지 모순된 양상이 병존하고 있다. 하나는 보편화, 획일화, 동질화의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다원화, 특수화, 이질화의 경향이다. 보편화를 주장하는 관점은 영화, 음악 등 예술적 의미로서의 문화를 미디어를 통해 상업화, 흔히 미국화로 일컬어지는 추세를 강조한다. 또한 보편화 현상은 다른 문화적 차원, 즉 거주환경 및 각종 사회제도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를 반박하는 후자는 보편화된 세계문화가 곧 다양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며, 과거처럼 제국주의적 힘으로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의 특수문화를 반영한 것이 아닌 보편성 속에서 다양한 국가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4]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문화의 획일화 경향은 미국의 "신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켜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처에서 민족문화의 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반응을 일으켜 저항을 유발하고 있다.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온 유럽은 역사가 일천한 미국의 저급한 대중문화가 자국의 유구한 문화를 잠식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남한에서도 그 동안 판소리, 탈춤, 민요, 풍물, 마당극 등 다양한 형태의 전통민속문화를 발굴, 그 심미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 온 노력은 이러한 반응이라 하겠다.[5] 최근들어 북한에서도 민족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국식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세계문화의 획일화는 하나의 환상이라 생각된다. 모든 인간과 집단은 독자적 기억, 경험, 습관, 유산이 있다. 세계가 기술, 경제, 금융 등의 분야에서 획일화된다 해도 인간과 집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문화의 획일화를 기도하겠지만 그의 다원성, 다양성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

3) 장-피에르 바르니에, 주형일 옮김, 『문화의 세계화』 (한울, 2000), p. 64.
4) 공유식, "세계화와 한국문화," 『사상』 95 봄호(사회과학원, 1995), pp. 203~204.
5) 염무웅, "'국제화시대'의 민족문화,"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94 겨울, 계간 27호(역사비평사, 1994) 참조.

세계화가 진척될수록 미국문화가 확산되지만 역으로 민족(Ethnic)상품이 극대화 될 것이다. 김치, 사물놀이 등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현재만큼 풍부해진 시점은 일찍이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족문화의 박물관화, 관광화가 아니라 생활화이다. 민족문화가 박제화된 보존으로 전락하지 않고 전통에 대한 재평가가 배타적인 국수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민족 고유의 문화란 것도 어떤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상황에 부합하여 새롭게 규정되고 살아있는 문화전통으로 끊임없이 재편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고유한 민족정서와 문화에 근거한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이야기할 때 민족정서, 민족문화, 민족정체성의 내용은 고유하고 고정된 실체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전통문화의 보전이라든지 민족문화 유산의 전승과 발전이라는 명제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제들이다. 이때 '보전'되고, '전승과 발전'되어야 할 문화의 내용은 누구나가 합의하는 것으로 전제된다. 국가주도의 자본주의(guided capitalism) 발전의 주체였던 군사정권은 충효사상과 은근과 끈기를 선택했던 반면, 197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된 민중문화운동은 민중의 한과 신명을 선택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바로 전통문화와 민족정서의 내용이 구성원 모두에 의해 합의된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선택되고 새로이 구성되고 획득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6]

민족문화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맞서기 위한 범주로서 낡은 민족개념을 동원하는 외부에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며, 또한 다른 민족집단간의 단결에 맞서는 반사적 방어적 민족집단의 개념도 아니다.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부의 이질적 요소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에 의한 문화통합과 외부에 대한 관용으로 결합된 개념적 공간이다.

결국 극심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민족 주체성에 뿌리를 둔 제반 정책들, 특히 주체적 문화정책이 요구된다. 결국 민족단위별로 얼마나 타문화와 갈등을 줄이고 얼마만큼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가는 민족문

6) 강명구, "문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자주적 문화의 형성," 『민족예술』 봄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994) 참조.

화의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충돌을 극복해가고 다원성을 인정할줄 아는 민족문화만이 생존할 수 있다.

한편 '세계화' 시대에 우리 민족이 세계 시민으로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형태로 드러나 사실상 '내적 식민지화'(internal colonialism)와 그것으로 인한 사회 심리적 균열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또 동북아의 주변 강대국과 군사적·정치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내적 식민지화' 전략은 북한을 우리의 일부로 포괄하고 주민을 희생자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개입할 근거를 찾는다. 북한의 개방 가능성과 남한의 감당 능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준거로 한 북한의 변화라는 기본틀이 관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한 남한사회의 내적 역량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말끔하게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다.[7]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민족적 반성, 새로운 가치관이나 문화의 수립의 차원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민족주의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 성찰을 통해서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의 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문화적 제국주의에 맞서는 문화역량을 배양하고 장차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동포와 더불어 살아가는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 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특히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해외동포들과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들에게 사상·이념적 편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자기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로 민족문화이다.

민족문화가 가능하려면 내부적인 통합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분단 등 단기적 해결이 쉽지 않은 단절요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역으로 민족문화라는 상위의 틀을 통해 연역적으로 내부통합의 단서와 계기를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즉 민족문화라는 상위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한민족의 민주적 통합과 시민사회의 성숙을 유도하고 압력을 가하

---

7) 전효관,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통일연구』, 제2권 제2호(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8), p. 67.

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8]

Ⅲ. 한반도 민족문화와 남북한 문화의 현재성

1. 한반도 민족문화의 특성

한반도 민족문화의 성격은 멋과 조화, 낙천성, 자연성, 보편성, 미풍양속, 예술적 우수성, 공동체적 유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 민족문화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해 세련화되고 성숙되어 왔다.[9]

그런데 우리의 민족문화가 상당히 비틀어졌다. 우리 문화가 비틀린 다른 요인은 미국의 문화와 일제의 식민지 문화다. 우리 전통문화를 미개하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고 신식 문명을 전파한다는 계몽적 관점에 서 있는 문화와 일제 식민지 문화는 우리 문화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들의 한반도 상륙은 민족문화의 변용을 가져왔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서구문명으로 무장된 새로운 선진문화의 유입이라는 문화제국주의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지배에서 일본은 한국전통문화의 후진성을 부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럼으로써 민중문화의 자생력을 차단하고 지방적인 공동체의식의 소멸과 유교적 관념체계의 온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반면 미국의 문화는 좀 더 근원적이고 광범위하다. 미군정을 통해서 유입된 미국문화는 한국전쟁의 상황속에서 실용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등 주요 특성들이 남한사회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산업화라는 문화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선택되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반도 민족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 이종철, "민족문화영역의 관점에서 본 재중동포정책 방향," 『민족발전연구』 제4호(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2000), p. 222.

9) 구범모, "21세기와 민족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세계화와 민족문화의 발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 20.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권위주의 문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이에 따른 위아래의 개념은 가족·학교·회사·기타 사회활동 전반에 권위주의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다. 나이뿐 아니라 직급과 사회적·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 권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깰 수 없는 한반도 문화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동양적 세계관인 정적 위계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예전의 신분제 사회 전통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계급적 모순을 지니며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강조가 권위주의를 생성시킨 요인이다. 유교는 지배계급에 의해 통치 이데올로기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10]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체면과 형식을 앞세운 권위주의 문화는 우리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 '가족'으로 대표되는 집단주의 문화를 들 수 있다. 집단성이란 개인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질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동체주의적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존재가치가 그가 속한 공동체주의에 종속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we-group), 그들(they-group)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11] 즉,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고향'은 우리 이외의 '다른 가족', '다른 학교', '다른 고향'과 대비되는 집단적 이기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성 역시 강하다. 낯선 문화형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감을 갖고 아주 서서히 접근한다. 새로운 문화를 인정하고 우리 문화로 수용되기 위한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

가족주의는 유교에 고유한 문화적 특질이라기 보다는 농경적 생산체제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의 가족주의적 특질은 농경사회적 경험에서 도출된 가족주의를 유교의 혈연주의로 해석함으로써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가족주의는 민중의 삶 속에서는 생활공동체로서의 부락, 특히 동족 부락 공동체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민족문화에서 보여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단일성과 동

10) 하지만 유교가 표현하고 있는 세계관에 담긴 내용들이 일정한 정도 당시의 삶을 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1) 김용규, "한국사회의 문화변동과 대중문화," 최경구 편, 『한국사회의 이해』 (일신사, 1996), p. 17.

질성을 들 수 있다. 삼국통일 이후 동일 민족의 단일국가로서 자리잡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생활양식에 의한 폐쇄성과 고립성은 그것을 특이하게 유지·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자연적이고 순응적이며 정서적·목가적인 농경문화적 성격은 오늘날 산업화·도시화된 시대에도 생활문화에 많은 부분 남아 있다.[12]

넷째, 한반도 민족문화는 서구 유럽문화와 달리 신분·계급간 문화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 불교와 유교의 문화는 혈연·학연·지연에 따른 계승과 연속을 중시하는 종적인 문화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왔다.[13] 지배층의 민본주의와 실학사상은 한글 보급과 함께 우리 민족구성원의 실생활에 많은 역할을 했다.

다섯째, 한반도 민족문화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외래 문물의 점진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토착화되었다. 무속신앙과 불교의 만남, 전통관습과 유교적 생활양식의 형태는 함께 공존하고 변화되어 왔다. 즉, 우리 전통문화에는 불교·유교문화와 식민지 시대의 일본문화, 해방 이후 민주주의·사회주의 체제와 함께 들어온 서구문화 등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른 민족과의 뚜렷한 차이를 갖는 문화의 특성으로 어울림의 문화를 지적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더불어 전세계에 퍼져있는 개인주의와 달리 아직도 남북한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울림의 문화와 신명의 문화가 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줄 아는 정적인 정서가 민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남아 있다는 것은 커다란 정신적 유산이다.

2. 남북한 문화의 인식과 현황

남한 사회에는 여전히 남한의 시각으로 북한의 문화를 조망하는 버릇이 있다.[14] 북한의 문화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특정한 이미지, 즉 정치에

12) 김대환,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이념』 (을유문화사, 1993), pp. 200~203 참조.
13) 학파와 지역적 갈등은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의 문화적 괴리는 크지 않다.

의해 과잉 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대비를 통해 남한은 상대적으로 순수한 문학, 순수한 언어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부과받는다. 문화의 순수성, 즉 비정치성이라는 관념은 하나의 환상으로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이다. 남한사회를 지배하는 원리가 획일주의와 권위주의이며, 그 구체적 내용이 근대화론과 제국주의적 정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15] 그동안 북한을 "주변화", "타자화", "대상화"하면서 우월감으로, 또는 동정이나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버리자는 노력을 해왔지만,[16] 여전히 "불쌍하다", "촌스럽다"는 표현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제국주의적 속성 때문일 것이다.[17]

주체의식과 민족의식으로 똘똘 뭉친 북한 문화가 물론 혁명전통을 이으려는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 매달릴 일은 아니다. 가극을 비롯한 음악, 미술, 건축, 무용 등 문화 전반에 있어 민족문화의 전통을 고수하려 했고 이것은 미풍양속에까지 스며있다. 북한의 단고기가 우리의 개고기와는 달리 대중적으로 즐겨 찾는 음식이 된 점이나 민요가 대

14)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는 남북한이 쓰고 있는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호에서 단적으로 느낄 수 있다. '조선'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쩐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과 함께 때로는 '남조선'을 연상케 하여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북한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고 '타락한' 자본주의적 냄새를 풍기는 말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접하는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사이에는 아무런 사상적·이념적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남북간의 문화적 차이는 뭔지모를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졌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과 '북조선'으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그나마 '남한', '북한'으로 쓰는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엄밀한 학술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대한민국의 약어로서 남한을 통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직까지 남북한을 동시에 한데 어우르는 적절한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립적으로 '코리아'라는 어휘를 동원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용법은 아니다.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당대, 1997), p. 21;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박영사, 1999), p. 274.

15) 조혜정, "통일공간과 문화: 비판적 재해석," 『통일연구』 창간호 1997년(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p. 80.

16) 위의 글, pp. 80~81.

17) 즉 남쪽보다는 잘 보존되어 사회 속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업적 우월감의 발로인 것이다.

중가요로 자리잡은 것을 문화적 헤게모니로 파악하면 이해가 쉽다.

남북한 문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한사회나 남한 학자들의 공동체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여전히 획일주의와 권위주의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은 근대화론과 제국주의적 정서에 근거한다. 이에 우리에게는 남북한 문화의 이해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18]

첫째, 일단 '다름' 보다도 '같음'을 강조함이 쌍방간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제이다. 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 북측 상봉자가 '김정일 장군님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일부를 제외한 다수 국민과 언론들은 '관대하게' 넘어갔다. 즉 다름을 공격하고 부각시키기 보다는 같은 측면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높게 쳐주는 것이 상호신뢰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같음'을 강조함은 단순하게 '문화적 동질성'만을 강조하려함이 아니다. 같음을 강조하는 것은 민족사적 견지에서 민족문화형성의 장기적 비전을 찾자는 뜻도 있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 민족문화를 찾기란 고궁이나 박물관 등 외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며, 쉽게 목격하기 힘든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민족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다름조차 인정되어야 한다. 즉 다양성의 조화를 위한 남북한의 제도와 문화가 존중되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반면 북한 역시 남한의 '자본주의식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 즉 다름의 형성은 남과 북 사회의 공통적이고 동일한 모습이다. 그 변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제도와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건 또는 근대화의 정도에 따른 결과이건, 사실상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신도 달라졌다.[19]

---

18) 주강현, 『북한의 우리식 문화』 (당대, 2000), pp. 18~22 참조.

19) 이영희, "남북한 정치사회상의 이질감과 극복," 『남북한 이질감과 그 극복 전망』, 효성여대 현대사상연구소 주최 1993년 통일문제 교수 학술세미나(1993.

민족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상호간에 개별적으로 나름의 사회를 건설해 왔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의 사회적 조건에 맞게 민족문화를 변화시켜 왔다. 해방 후 북한에서의 민족문화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일제 식민지 경험에 따른 반제국주의적 민족관, 마르크스-레닌주의, 유교적 전통주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혁명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통을 강조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남한보다는 일찍부터 민족문화와 전통에 대한 평가와 계승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북한 역사학 일반이 그러하듯이 민족문화에 대한 평가기준도 처음에는 유물사관에 입각해 있었고,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에는 그에 따르고 있다.

북한은 배타성이 강한 사회문화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타주의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한 고통과 한국 전쟁당시의 미군에 의한 피해경험이다. 이것은 외부 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남았다. 이것이 주체사상과 결합되면서 배타주의가 매우 공고화된다. 이런 배타성에서는 주체사상이나 북한 이외의 국가나 체제 그리고 가치관, 사상은 수용할 수 없게 된다. 북한사회체제는 이데올로기의 전위인 노동당에 의한 인위적인 획일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는 집단주의적 이념에 근거하여 가치론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강요하고 있다.[20] 그러므로 북한의 사회문화는 주체적 사실주의의 기초하에 종자론, 주체론 등에 입각하여 체제유지, 김일성 우상화 및 공산주의 인간개조를 위한 도구적 기능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북한의 사회·문화는 대부분 당규약이나 김정일의 교시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전통문화를 봉건적 잔재의 산물이자 사회주의 건설에 불필요한 장애요소로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전통문화를 배제하는 정책을 폈다.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의 도입으로 전통문화가 정치적·계획적으로 파괴되었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정권은 체제경쟁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각기 전통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또한 권력의 독점

9.23), pp. 5~6.

20) 권영민, "문화·예술통합의 과제," 『한민족공동체의 모색(I)』 (21세기위원회, 1991. 11), p. 96.

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이용하기도 했다. 권력에 의한 전통적 가치의 활용은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민족적 긍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저해해 왔다.[21] 특히 2월 16일 김정일 탄신일, 4월 15일 태양절, 9월 9일 정권창건일 등 국가공휴일 제정 이후 전통적 세시풍속은 축소되었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를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당국이 힘을 쏟고 있는 전통문화는 민족가극, 계몽기 가요, 한복 입기, 전통음식, 민속놀이 등이다.[22] 또한 북한 어린이들은 요즘에도 줄넘기, 꼬리치기, 자치기, 대말타기 등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여전히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3] 북한이 체제위기를 맞이하며 민족문화와 유물·유적을 부쩍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이라는 차원에서도 민족문화를 주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인 문제로 당연한 결과이겠으나 고구려와 고려 그리고 발해 유물의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며, 평양인근의 구석기 유물을 대동강문화로 규정하면서 조선민족의 뿌리를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북부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동강문화(선사시대)→ 고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 북한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이 확립될 수 있다.[24] 북한의 문화는 항상 정치적 목적과 결부된 전체주의적 집단주의 성격과 문화구조가 당에 의해 타율적이고 강제적으로 조성되어 획일적·단선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상호 공통영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동안 국가에 독점되었던 경제영역이 사적 자율화의 바람을 타면서 사회적 영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문화 영역에서 사적 자율화의 첫 번째 유형은 록음악과 디스코이다. 문화적 자율성의 두 번째 유형은 북한 주민들의 남한노래 애창이다. 문화적 사적 자율화의 세 번째 유형은 패션

---

21) 윤덕희,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과 실천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1집 1호(한국정치학회, 1997), p. 177.

22) 『연합뉴스』 2002년 6월 3일(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2.6.3).

23) 『중앙일보』 2002년 5월 25일(http://nk.joins.com 검색일: 2002.5.25).

24) 이우영, "북한의 역사유물 발굴과 민족문화," http://www.multicorea.org/kFrame.htm

의 자율화이다.[25] 남한의 대중가요인 '사랑해', '사랑의 미로' 등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통기타 바람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26]

친일잔재를 온존시키며 성립한 남한은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 초래한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폐해로 인해 전통문화가 급속히 해체됨으로써 생활문화나 의식구조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남한에서는 산업화로 인하여 농촌에 남아 있는 전통문화가 많이 파괴되었고 특히 서구문화의 홍수로 인하여 생활문화나 의식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생활문화의 측면은 남한이 북한보다 오히려 전통문화를 더 멀리하고 더 서구화하였지만 세시풍속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북한의 국가 통제에 의한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27]

남한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순수예술부터 참여예술, 전통적인 문화부터 급진적 문화, 보수주의적 예술부터 실험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문화가 지향하는 바도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28] 그러나 최근 남한의 문화는 빈부격차 심화로 경제력 수준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문화괴리가 생기고 있다. 의식주뿐 아니라 모든 문화영역에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또한 지역감정이 문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남한은 현재 '지역 이데올로기'에 묶여 개혁·변혁세력을 분열시키고 지역 내에서 이들 세력을 무력화시켜 민족전체의 미래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남한에서 다양한 문화형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접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넓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간·신분간 세부적 갈등요인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한내의 문화갈등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를 해소하기 위한 민족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5)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나남출판, 1995), pp. 341~343 참조.
26)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2.6.28).
27) 이광규, "세계화 시대의 민족문화와 문화산업," 정진영 편,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서울: 세종연구소, 1995), pp. 149~150.
28) 이우영·공성진 외, 『미리 가본 통일한국』 (서울: 동화출판사, 1994), p. 129.

이처럼 현재 남북문화의 차이는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근대화의 수준이 만들어 내는 차이인 것이다. 남북한 문화를 비교해 보면[29] 남한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력이나 흡수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상품화, 외래사조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민족문화의 퇴조, 문화의 파편화가 문제라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비교적 균등한 문화의 수용, 민족문화의 적극적인 유지, 통합기제로서의 문화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도구화, 획일화, 강제적 문화수용은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

남북한의 문화정책과 전통문화 계승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남북한 간의 서로 다른 문화 개념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남한은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 개념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수용하는 가운데 다원주의적 주장들이 공존하는 반면, 북한의 문화 개념은 북한 고유의 철학적 세계관이자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다.

남북한 문화 정책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문화적 차원의 체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동질화보다는 이질화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북한의 문화정책이 정치구조에 예속된 정도는 상당히 높으나 일반 주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와 시설 확충이라는 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30]

문화적 동질성이라는 것이 실은 분단 이전부터 있었던 지배문화의 잔존이 아니라 역동적인 역사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현상이다. 이우영의 논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정책 수립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여 남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31]

---

29) 오기성, "남북한 문화통합에 있어 정치학적 통합이론의 함의,"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제8집(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1997), p. 89.

30) 이인정,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과 전통 문화의 역할," 이온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p. 210.

첫째, 문화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건국 초부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남한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7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직 차원에서 북한은 당의 문화부와 선전선동부가 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반면 남한에서는 1960년부터 문화공보부가 주관하다가 1990년부터 독립부서가 관장을 한다. 문화정책을 실천하는 부서로서 북한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있으며, 남한에서는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이 있으나 북한의 문예총은 당의 공식기관인 반면, 문예 진흥원은 외형적으로는 국가가 출연한 독립된 기관이다.

셋째, 국가개입의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북한은 문화의 창작, 분배, 문화예술인의 양성과 조직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있으나 남한은 기본적으로 문화를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남한은 직접 간섭하기 보다는 지원단체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넷째, 북한에서는 건국 직후부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설을 확대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문화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남한은 주로 문화예술인과 같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하였을 뿐이다. 남한에서 일반주민의 문화역량을 기르는 데 관심을 기울인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런 차이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이 정치와 경제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32]과 남북 모두 민족문화건설을 문화정책의 주요목표[33]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다.[34]

---

31)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연구보고서 94-28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14~117.

32) 남북한 모두 정치적 정당화를 위하여, 또 경제적 동원을 위하여 문화를 활용하였다.

33) 1990년대 이후 남한은 국제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듯하면서, 한편으로 상품성이 높은 민족문화를 만들자는 면에서 전통 재창출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 역시 다른 이유에서이겠지만 여전히 민족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단군릉 개발이나 단군의 시신발굴에 대한 소식들이 그런 경향을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처럼 남한은 건국이후 민족문화를 무시하고 오로지 '근대화'에 주력하다가 경제성장 이후 복고주의적 성향의 민족문화 발전전략을 채택했던 데 반해,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이나 유일체제 확립에 도움이 되는 민족문화 개발에 주력해 왔었다. 이 점에서 차이를 보이나, 남북이 모두 공통적으로 독재국가 권력이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민족문화'를 강조한 점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문화' 논의가 양체제 모두에서 지배집단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민족문화'를 계승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에서 전통문화를 정비하고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는 반면, 국내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 문화의 일면을 또한 강조하였던 것이다.[35]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심적인 개념에 '가족'이 있다. 공식,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요소는 여전히 유교적 가족주의다. 북한의 경우는 그것이 '국가의 가족화'로 나타나고 있고, 남한의 경우 비공식적 사회관계를 관장하는 논리로서 자리잡고 있다.[36] 북한에서 유교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활용은 국가가 효의 가치와 가부장권의 질서가 지속된 아래로 부터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아래로 부터의 전통문화와의 갈등을 극복함과 동시에 부자세습체제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함이었다. 북한 사회의 유교문화의 저변의 흐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오래된 심리문화적인 전통이 정치적인 담론으로 상승, 활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7] 하지만 남과 북의 가족의 유대는 남북한 동질화를 쉽게 추진할 수 있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왕래가 가능하다면 성묘라는 하나의 관례만으로도 많은 부분 사회·문화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의

---

34) 위의 글, pp. 117~120.

35) 조혜정, "남북통일의 문화적 차원: '북조선'과 '남한'의 문화적 동질성·이질성 논의와 민족주의·진보주의 담론," 송자·이영선 편, 『통일사회로 가는 길』 (오름, 1996), p. 51.

36) 김동춘,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와 통일문화 수립의 과제," 『민족예술』 9월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995), p. 68.

37) 강진웅, "북한의 가족국가 체제의 형성: 국가와 가족, 유교문화의 정치적 변용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3권 2호(평화문제연구소, 2001), p. 343.

제도적·사상적 차이를 무색케 하는 유교적 사고체계 중 하나인 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한민족 구성원은 한반도 이외의 어디에서든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은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표 1〉 남북한 동질성의 모습

	남 한	북 한
사회적 가치의식	·집단주의가 강하게 온존 ·유교적 가치관의 전승 ·가족적, 온정적	·집단주의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의 잔존 ·가족적, 연대적
민 족 의 식	·강한 민족의식	·강한 민족의식

출처 : 임현진·정영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현실과 과제," 『통일연구』 제3권 제1호(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9), p. 355.

또한 강한 민족의식을 남북한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표현되는 민족의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남한은 애국심, 반미·반일주의 등 민족적 의식 또한 크게 남아 있다. 남북한은 아직까지 강한 민족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의 곳곳에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질성의 잔존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있어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배타성과 획일성 등의 공통점은 통합을 수월하게 하기보다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남북 사회가 공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요소들, 즉 전통에 기초한 가족주의, 권위주의, 집단주의(혈연, 지연 등), 이기주의(개인, 가족, 지역중심) 성향, 분단 이후 강화된 상호불신과 적대, 그리고 민족주의 성향 등은 동질적 요소이기는 하되, 통합을 유도하는 친화력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리와 해체, 갈등을 유발하는 동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38] 이 점을 간과한 민족문화의 무조건적인 동질

38) 조혜정, "'북조선'과 '남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96) p. 46; 조형, "세계화시대의 통일과 여성," 『세계화시대의 통일과 지방화』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대회발표논문, 1995), p. 8.

화 추구는 더 큰 문화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에서 언어·예술·관습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이질화로 민족문화의 전통적 요소들이 각기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남한이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개인주의를 존중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를 지향하면서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질적으로 형성된 북한 주민들의 가치 체계[39]로는 첫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전체주의, 집단주의, 반이기주의, 반개인주의 등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타율적이고 순종적인 경향, 셋째로 배타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에 영향을 받은 온정주의적 가치관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남한의 전통적 가치체계는 유교적 도덕관에 바탕을 둔 신분적 위계 질서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으나, 분단 이후 서구 근대 문화 변동의 영향을 받아 '근대화'라는 일반적인 이상 아래 민주화, 산업화, 도시화, 평등화라는 사회 변동의 정향에 따라 문화 변동의 정향 역시 전통적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의 자아와 권리를 해방하는 개체화라는 이상을 추구해 왔다.[40] 따라서 남한 주민들의 가치 체계 역시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합리성의 증대, 전통적 도덕성의 붕괴와 실용성의 증대, 그리고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주의로의 전환 등의 특성을 답습[41]하고 있다.

---

39)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74~76.

40) 이인정, 앞의 글, pp. 199~200.

41) 윤덕희·김도태, 앞의 책, pp. 7~8.

〈표 2〉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

	남 한	북 한
이 념 체 계	·자유주의·시장경제적 가치관 ·개인주의	·주체사상·사회주의적 가치관 ·집단주의
규범적 가치의식	·개인의 권리 중심 ·개인주의적 도덕관 ·합리적 사고 중시	·집단의 이익 중심 ·집단주의적 도덕관 ·혁명적 사고 중시
근대화와 전통	·근대화 지향적	·전통 지향적
선호되는 가치순위	1) 행복한 가족관계 2) 편리한 삶 3) 자유 4) 타인의 인정 5) 국가의 안정 등	1) 국가의 발전 2) 평등 3) 편안한 삶 4) 행복한 가족관계 5) 자유 등

출처 : 임현진·정영철, 앞의 글, p. 353.

하지만 문제는 이질화를 우열의 관계로 생각해서 북한을 이질화의 중심 의제로 놓는 경향이 있다. 남한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을 발전시켜 왔으며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해 왔다. 북한은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발전시켜 왔다. 이처럼 남북한은 생활양식, 가치, 지향점 등에서 분명히 다르다. 남한이나 북한 모두 상대방을 이질적이며 동시에 열등하다고 생각해 왔다.[42] 남북한의 이질화는 어느 일방의 문제로 고려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다.

42)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충족적(self-contained)이고 자율적이며 독특한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을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로 보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독립적인 자기상의 추구가 문화적 명제가 된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사회구성의 궁극적 단위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조화를 추구하는 상호의존적인 자기상의 추구가 문화적 명제가 된다.

Ⅳ. 남북한 문화교류와 문화통합 방안

1. 동질화, 문화통합

대부분의 통일논의에서는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동질성 회복을 강조한다. 특히 민속전통의 잔재를 중시하고 남북한 사회에 그것의 회복과 확산이 곧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이라고 보고 이를 문화적 통일상태로 간주한다. 남북한의 문화통합은 양극화된 문화적 이질성을 동질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혼란없는 남북한 문화적 통일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남북한간에는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켜서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동일역사의 공유와 동일언어 사용에 바탕한 민족동질성의 확보와 문화적 변용을 통한 동질화를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문화적 변용을 통한 동질화는 동질성 회복과 개념을 달리한다. 동질성 회복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서 해방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한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강하고, 동질화는 해방이후 이질화 되어온 지금까지의 모습이 앞으로는 더 달라지지 않고 같아져 간다는 뜻이 된다.[43] 따라서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동질화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44]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동화가 아니라 공존적인 통합이며, 이 작업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전제가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 민중의 생활문화에 교류협력

---

43) 임채욱,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문화교류 방안,"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남북간 문화교류』 (남북문화교류협회 '96통일문제 세미나, 1996.11.6), p. 7.

44) 그러기 때문에 문화의 동질성 회복 대신에 문화적 통합(cultural integration)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문화통합이란 다양한 하위 문화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전체로서의 하나의 문화체계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성의 이해와 수용의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김광억, "문화소통과 문화통합 -통일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21세기 민족통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제2회 학술대회, 1999), pp. 5~6.

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이질감 극복은 과학적, 전략적 사고를 지향할 때 가장 먼저 당면하는 실천적 과제라 할 것이다. 남북한간 이질감 극복은 북한에게 인권이나 경제개방 못지않게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일깨워주는 성찰적 의미도 많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이질감을 생산하는 사회제도나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합해내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경수로 공사, 경의선 철도 복원, 한글자판의 통일 등 실행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제도적 통합을 이루어내면서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남북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어도 철도, 도로, 통신 등 사회기간시설에서의 통합성을 높이고 동시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 운영 면에서도 연계성을 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한에서 보다 인간적이며 선진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모범이 되는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북한주민들이 보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북한지도자들의 보다 진전된 개방과 제도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문화와 사상면에서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합해내는 것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지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이질적인 문화와 사상, 철학에 대한 논의의 장을 넓혀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이 없는 정치·군사적 통일은 문화와 사상의 급속한 통일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 또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남북한간의 제도 협력과 공동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문화의 강점을 살리는 사상과 철학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간의 문화적 통합을 말할 때는 분단체제하의 근대화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즉 분단체제가 만들어 낸 동질성, 곧 적대감에 바탕을 둔 문화·심리적 정치학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통합의 목표는 민족 동질성의 확보와 문화의 이질성 포용을 통한 한민족의 새로운 문화창출에 있을 것이다.

2. 남북한 문화교류의 활성화

문화분야는 교류 자체가 감정화합이며, 교류실현과정이 곧 통일로 접근하는 길이다. 이에 상대방의 문화정서를 고려한 교류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공통기반을 가진 전통예술 위주의 문화교류를 꾸준히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 교류를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 교류 협력은 남북 이질화 해소에 기여하고 남북한 문화통합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에 남북 교류는 보편적 관행과 원칙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일관성있는 정책과 원칙이 필요하다. 문화부문은 비정치적 분야인 만큼 정경분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치적 논리에 종속되거나 흔들림이 없게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현실적 상황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시 방북과 대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합해야 할 것이다.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서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북한주민접촉의 경우,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문제가 시급하다.

셋째, 남북간 사회문화의 교류 협력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례화·구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교류 협력의 추진주체는 물론 정부 역시 지속성을 띨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류 협력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민간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쌍방향 교류가 필수적이다.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 상호방문 및 순차적 교류 협력이 어렵다면 북한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 남한의 지자체와 북한의 지역사회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만남을 지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실행하며, 통

일분야 민간단체에 대해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과 세금감면 혜택, 기부금품 모집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효율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서 남북경협의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지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북한산림복구, 북한의료계와의 교류협력,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종교계·남북 여성교류 등 향후 확대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교류 등 지속적인 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교류와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통일 지향적 국민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단체 등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이 확산 강화되어야 한다.

3. 남북한 문화통합 방안

남북 사이의 문화통합은 현실 여건상 단계적인 접근이 모색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인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이질적인 부분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문화적 동질성이 남아 있는 전통적 민족문화의 확대 노력하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한 문화통합은 교류모색 단계, 제한적 교류 단계, 교류활성화 단계, 통일문화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단계로서 교류모색 단계는 대화를 통한 화해가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평화가 확실히 정착되는 시기로 이 단계에서는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쌍방 공동관심사를 확인하고 교류범위를 모색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문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표출된 문화현상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문화현상의 본질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전통문화의 변화된 모습은 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의식과 대립만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동질적 요소는 확대·발전시키고, 이질적인 요소는 원인진단과 함께 극복·지양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를 구성해

야 한다. 이 협의회는 문화영역의 다양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문화정책의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일정정도의 정부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의 개별적으로 실질적인 문화교류 행정자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두 번째 단계는 제한적 교류 단계로서 기본 합의서와 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를 이행하는 준비 단계이다. 이 단계는 교류목표인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단일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공통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우선 교류되어야 한다. 주로 비정치적, 비이념적인 체육이나 과학기술, 생활 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또한 민간 부문의 아래로부터 교류가 생성되기 보다는 당국간 합의·승인으로서 성사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45]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우선 순위는 전단계인 교류모색 단계에서 이루어진 공통관심사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또한 쌍방간에 유해로운 내용을 회피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교류활성화 단계로서 기본 합의서 이행 등 제도적 차원의 교류가 추진되고, 이산 가족, 언론·출판 등 서로 교류를 꺼리는 분야까지 교류·협력이 가능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위·아래 동시 접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46] 또한 스포츠의 친선경기와 생활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층의 만남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대해 통일한국의 미래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반면 분단이후의 적대적 이데올로기가 뿌리깊게 남아있는 장년이상의 세대는 분단이전의 전통문화를 통해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성간 교류는 사회와 가족내의 문화와 생활문화, 즉 의식주, 자녀교육 등 여성의 사회·가족에서의 역할과 지위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스포츠 교류에서도 남북체전이나 남한의 야구, 축구, 농구 등 프로리그를 확대하여 남북한간의 정기적인 경기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지역 중심의 팀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

45) 김경웅, "북한의 문화," 김경웅 외, 『신북한 개론』 (을유문화사, 1998), p. 170.
46) 위의 글, p. 170.

한과 북한의 특정지역을 연계해 팀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남북의 문화적 유대감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시도 중에서 우선 일체감을 맛볼 수 있는 남북 축구경기의 정례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본다. 평양의 5.1경기장과 남한의 월드컵 축구장 활용을 위해서도 '경평축구'의 부활, 남북축구 경기의 정례화가 필요하다.[47] 단기적으로는 이번 월드컵의 열기를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옮기는 것이다. 어떤 종목이든지 단일팀 구성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기존의 탁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확대해 계속적으로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것 역시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언어와 역사, 자연과학, 첨단공학 등의 인적·연구업적 교류는 민족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통일문화 단계로서 통일 국가의 사회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본격적인 문화통합 단계이다. 남북한간의 통합 문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융화만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여건과 제도적 조건 등 실생활에 밀접한 요구도 함께 충족되어야 공동체 의식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48] 통일문화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이뤄진 민족 구성원간의 신뢰와 남북한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통일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분단문화의 이질성의 폭을 대폭 줄이고 한민족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후 민족공동체 일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적 차별성과 유사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적응성을 높임으로써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7) 남북 간의 동질성은 축구에서도 어김없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북한이 월드컵 경기를 연일 녹화 방영하는 것과 9월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1966년과 2002년에 남과 북이 월드컵에서 똑같이 이탈리아를 꺾은 이변을 연출했다는 것은 남북 간의 민족 동질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의 행태를 문화개방 계획으로 판단하기에는 성급하지만 최소한 정체된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48) 김경웅, 앞의 글, p. 170.

특히 전통문화는 남북한 통일문화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째, 남북한이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민족과 전통의 원형을 바탕으로 문화적 동질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근간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류 보편적인 문화체계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전통문화의 특수성으로 보완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우리의 것으로 토착화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49]

통일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을 보면, 윤덕희는 "통일문화 형성을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일성취의 외향적 측면보다는 그것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내면적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50]고 주장한다. 나아가 '통일'의 복합적 의미는 '통일문화' 개념의 내용상 복합성을 설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하고, '통일문화'의 개념이 ①통일한국의 사회구성원이 다 같이 지향해야 할 신념, 가치체계, 행동양식 체계로서 통일한국의 이념에 부합되는 민족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한다는 점, ②통일과정을 통해 분단된 사회문화 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를 의미한다는 점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지적하고 있다.[51]

통일문화는 통일운동의 성과와 함께 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문화운동을 시대적 상황의 전개와 함께 '전통문화 복원운동', '민속문화운동', '민중문화운동', '민족문화운동', '통일문화 운동'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는 단계에 대한 인식, 통일문화는 분단의 시작과 함께 형성된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바램의 표출이었다. 통일문화는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이며, 통일 이후 민족의 동질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로서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포괄해야 하며, 보다 넓게 해석하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리고 분단을 극복한 민족공동체의 삶 그 자체가 된다.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폐해를 직시하면서 일차적 과제로 문화적 측면에서 이질화의 실체를 분석하고, 양

49)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방향 연구," 『통일문화 연구(상)』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80~81.
50) 위의 글, p. 9.
51) 위의 글, pp. 22~23.

체제 속에서 이어 내려온 동질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서로간에 인정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확대, 한겨레 한 민족의 정통성을 함께 공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국 '통일문화'라 함은 통일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선택과 비판을 위한 분석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숙달시키며, 통일국가를 성취하려는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일반의 의식도 포함하며 분단에 기초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 민족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V. 맺음말

분단된 민족에겐 문화적 토대가 중요하다. 문화는 분단에 저항해야 하고 유대감은 지속되어야 통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문화는 이데올로기와 경제에서 비롯된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특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통일이 이루어질 한반도에서도 통일의 기쁨은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줄 것이다. 대부분의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을 가난한 친척쯤으로 여기고, 그 결과 동독인들 스스로 이등시민으로 인식하고 있듯이, 통일된 뒤 부유한 남한이 가난한 북한에게 승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한국도 독일처럼 되기 십상이다.

문화통합은 결국 통일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목표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일단은 북한이 남한과 어느 정도 대등한 파트너로서 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올바로 평가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북한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이와 무척 상이한 남한사회가 화해·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한에서의 인내, 상세한 실정의 파악 그리고 보다 관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질성의 포용이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실천적인 훈련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이탈주민이나 해외동포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관심

으로의 전환은 이질성 포용의 예행연습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예행연습은 우리들에게 체계화되어 무의식의 습관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통합의 문제에 천착하여 시민들에게 통일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야의 틀을 넓혀야 한다.

이질화의 문제나 동질성을 이야기할 때 전제조건은 구조와 정책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중요한 것은 인식의 문제이다. 과연 우리는 북한을, 북한주민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전환이 진정한 동질화를 위한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남북한 문화통합은 나아가 문화의 세계화속에서 한반도 민족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민족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법은 민족문화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질적 향상의 근원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창조성을 배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육제도나 문화체계 전반에 걸친 새로운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민족문화의 세계적 보급이 필요하다. 보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와 멀티미디어이다. 특히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인터넷이나 위성방송을 통해 민족문화를 널리 소개한다면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02년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은 한반도 대중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이념과 시대를 초월한 영화, 어떠한 사상과 제도도 들어있지 않은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우리 민족, 우리 문화의 위대함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문화속에 담아 승화시킬 때만이 자신 속 내부의 상처를 치유 받고 잃어버린 시간의 의미를 재창조하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